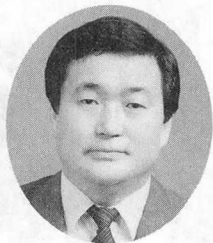




돼지콜레라, 오제스키병 박멸대책 주요내용



최 홍 렬 수의사무관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

최 근의 양돈사육 경향은 경쟁력 제고 목적으로 가구당 다두사육 추세를 보이고 양돈단지 자원사업에 의한 밀집·집단사육으로 인해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는 심각할 정도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전기업규모 농장과 양돈단지에서는 가축전염병 피해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및 소독실시 등 농장방역에 비상이 걸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

요즘에는 식품 특히 육류·우유 등 축산물의 안전성 문제에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에 정해진 기준 이하의 극히 미량만이라도 검출되었다고 보도되면 즉시 소비량 격감과 직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양돈업계에서는 대일돈육수출 특히 냉장돈육 수출증대를 위해 집중 노력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96년부터 돼지콜레라 박멸 체제 확립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687백만엔(약55억엔)을 책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백신을 사용하지 않는 박멸대책을 수행함과 동시에 해외로부터 돼지콜레라 침입방지대책을 시행할 것이 예상되므로, 동 계획이 완료되는 2001년부터 청정화를 선포하게 되면 돼지콜레라발생국에서는 일본에 돈육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일본은 이미 '92년부터 돼지콜레라 발생이없고 일부지역에만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나, 국내의 방역여건은 돼지사육두수 641만두에 대한 백신접종률이 겨우 55% 정도로 낮은수준이며 각지역에서 매년 돼지콜레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두나라간의 방역여건에 큰 차이가 있다.

우리도 더 늦기전에 돼지콜레라 만큼은 우선적으로 2,000년까지 박멸시키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돈육대일수출이 어렵게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돈농가, 업계, 생산자단체는 물론 학계와 관련행정기관 등 모두가 동참하여 추진해야겠다. 이에따라 당부에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주요 가축 전염병박멸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박멸대책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한다.

1. 박멸대책위원회 설치·운영

- 목적: 축종별 주요 전염병 박멸을 위한 단계적 대책수립
- 위원장: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김봉환
- 부위원장: 농진청 수의과학연구소장(이재진)

가. 국내양돈업의 현안 문제점 분석

돼지전염병 박멸대책 분과위원회에서는 국내양돈업의 생산성 저하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고 이를 참고하여 각 농장별로 방역상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해야겠다.

〈표 1〉 축종별 3개 분과위원회 구성

구분	분과위원장	간사	위원수	위원 구성 내역
돼지	경북대 수의과대학 김봉환 교수	수의과학연구소 바이러스과장	23	양돈농가, 양돈관련단체, 학계등 전문가
닭	서울대 수의과대학 김선중 교수	수의과학연구소 계역과장	12	양계농가, 양계관련단체, 학계등 전문가
소	서울대 수의과대학 박용호 교수	수의과학연구소 세균과장	14	낙농육우 양축농가 및 관련단체, 학계등 전문가

- 농장 차단방역, 소독, 격리 등 위생관리 미흡
- 방역의지 결여로 백신접종 등 예방조치 미 실시
- 예방접종률 : 콜레라 : 55%, 전염성 위장염 : 42%
- 전염병 발생 은폐 및 신고 기피로 질병확산
- 감염돈의 이동제한, 판매 금지 및 도태 불이행
- 양돈단지 조성시 위생시설 및 질병 관리방안 소홀
- 성장단계별 분리사육 미 실시로 질병관리가 어려움
- 종돈장질병 청정화 육성 대책 미흡
- 전염병 발생시 국가방역 대책에 대한 불신감 및 피해의식 팽배
- 무분별한 종돈수입으로 질병유입 가능성 상재

나. 전염병에 의한 경제적 피해 분석

또한, 동 위원회에서는 돼지 전염병에 의한 경제적피해를 <표 2>와 같이 추정하였는바, '95년중 연간양돈 총 생산액이

<표 2> 돼지 전염병에 의한 경제적 피해 추정

총사육두수 총생산액 (원)	손실액 (원)	주요 손 실 요 인
640만두 12,920억	2,584억(20)	돼지콜레라, 오제스키병 등 급성질병 전염성위장염 등 각종 자돈 설사병 홍막폐염 등 각종 호흡기 질병 일본뇌염 등 각종 번식장애 질병 콕시디움 등 각종 기생충성 질병

12,920억으로써 이중 20%인 2,584억원이 돼지콜레라, 오제스키병, 설사병, 호흡기병 등에 의하여 폐사, 유사산 산자수 감소, 증체율감소, 사료효율 저하등의 피해액으로 추정된다.

2. 전염병 박멸대책 추진계획

박멸대책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된 대책방안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부에서는 전염병 박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박멸목표년도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박멸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고에서는 지면관계로 우선 간략하게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고자 한다.

가. 전염병 박멸목표년도

구 분	'96	'97	'98	'99	2000	2001	2002	비 고
돼지콜레라	[Progress bar]			←→				
오제스키병	[Progress bar]				←→			

나. 돼지콜레라 박멸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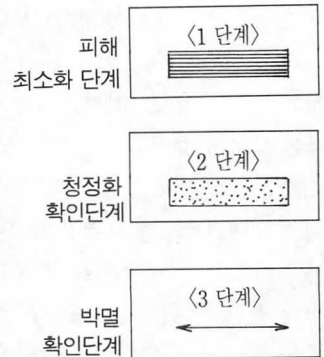
추진목표 돼지콜레라 박멸 3 단계 계획(5년) 추진으로 박멸

-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양돈 산업 육성-대일돈육수출 확대 추진

※ 일본 : '9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박멸대책 수립시행중이므로 2001년부터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언-발생국은 수입금지예상

단계별 추진계획

- 박멸초기단계(2년) : '96~'98. 6
 - 생독백신 접종확대(접종률 55%→95%)
- 박멸완결단계(2년) : '98. 7~'99
 - 생독백신 사용금지, 유전자재조합백신 접종, 감염돈군 살처분



● 박멸확인단계(1년) :

2000년

-백신 사용금지, 검색강화로
청정농장 유지·청정화 선포

돼지콜레라는 현재 국내 양
돈여건상 가장 중요한 박멸대
상 전염병이므로 이를 조속히
박멸시키기 위하여 금년 후반
기 부터 집중적으로 방역홍보
를 실시하고 예방접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제까지 국가방역사업으로
실시한 예방주사는 시도에서
예방약을 구입하여 시·군에서
읍면으로 예방약품을 배정하여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각 시
군단위로 생산자단체(축협, 양
돈협회 시군지부)가 중심이 되
는 공동방역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별 방역책임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공동방역을 잘 시행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예방약품과 소독약품등을 지원
하여 자율적인 방역체제가 이
루어지도록 하고, 공수의를 최
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대
책을 추진하겠다.

각 시도별 돼지콜레라 발생
상황은 <표 3>과 같이 금년에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남·
북지역에서 발생되었으므로, 앞
으로는 각 시도별로 책임관리
제를 확립하고 우선적으로 '96
년부터 '98년 6월까지의 예방접
종을 최대한 확대실시할 수 있
도록 백신접종시기 및 방역요

<표 3> 시·도별 돼지콜레라 발생현황

(단위 : 두, 발생농가수)

시·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4
부산		267(1)					
경기	317(6)	317(6)	539(7)	799(11)	598(8)	435(3)	500(4)
강원	51(2)	472(4)	65(1)		110(1)	47(2)	280(1)
충북	125(7)	158(4)	40(2)	245(7)	105(3)		
충남	66(1)	305(4)	197(2)	60(1)	292(3)	254(1)	120(2)
전북	177(8)					151(8)	250(1)
전남	6(1)	129(4)	401(7)	122(2)			
경북	40(2)	141(2)					547(6)
경남	492(8)	5(1)	85(5)	127(3)	420(4)		36(1)
계	1,284(36)	1,794(26)	1,327(24)	1,353(24)	1,525(19)	1,037(14)	1,733(15)

령등에 대한 방역 교육 및 홍보
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의 경우는 '89년
부터 비발생지역이므로 시·도
발생상황에 따라 박멸계획을
별도로 시행하여 지역별 비발
생지역을 확대시켜 나가겠다.

세계적으로 돼지콜레라 발생
현황을 보면 한국, 벨지움, 중국
에서 계속 발생되고, 멕시코, 독
일, 이태리, 브라질등에서는 한
정된 지역에서만 발생되고 있
으나, 캐나다, 미국, 덴마크, 프
랑스, 영국, 호주등 대부분 축산
선진국가는 비발생국가로 보고
되었다(OIE보고).

다. 돼지 오제스키병 박멸
대책

추진목표 3단계 박멸계획
(6년)으로 오제스키병 박멸

● 감염지역인 경기도, 충남
도에 대하여 집중방역실시 및
확산방지

추진계획

● 박멸 초기단계(3년) :

'96. 6~'99

-감염돈 색출, 감염율을 1%
이하로 감축

-자율박멸사업단 구성운영

-백신접종, 검사강화

● 박멸 완결단계(2년) :

2000~2001

-감염돈군 전두수 의무적
살처분, 도태→청정돈군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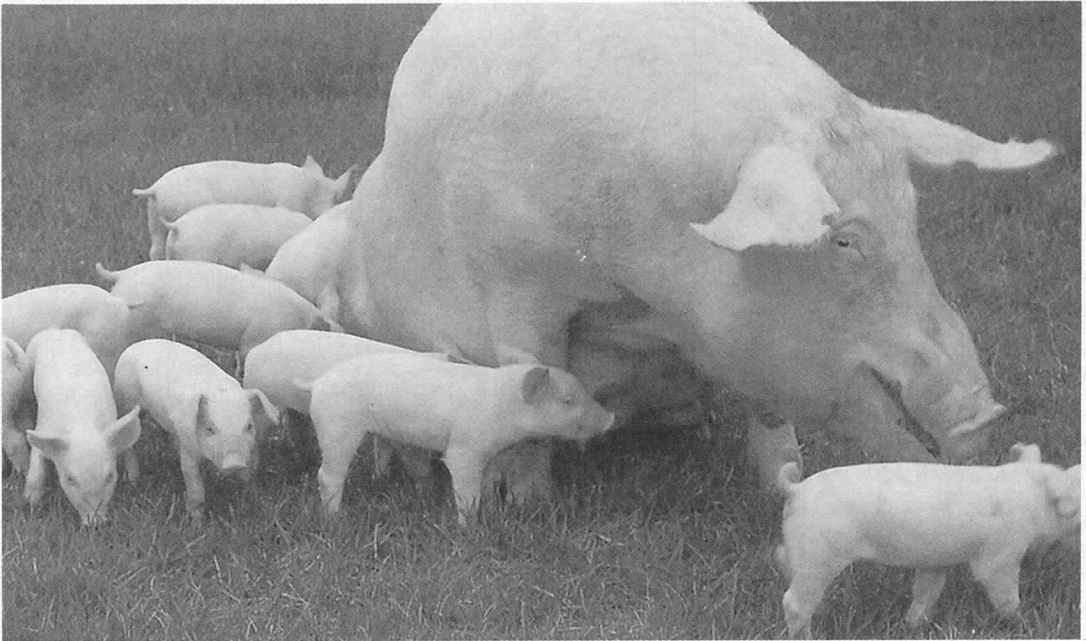
● 박멸 확인단계(1년) :

2002년

-백신 사용금지, 발병돈군 없
을때까지 검사 계속→박멸선포

돼지 오제스키병을 박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돈업계
의 적극적인 방역참여가 중요
하다. 현재 경기도 이천·여
주·용인지역과 충남 홍성군
지역에서 실시중인 방역사업단
을 더욱 활성화 시켜 방역지원
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같
은 생산농가가 주체가 되어 공
동방역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오제스키병 방역실시 요령에



의거 종돈장에 대한 검사가 원활이 실시될 수 있도록 양돈업계와 협의하여 검사방법을 보완할 계획이며, 발생지역뿐만 아니라 발생의심 지역에 대해서도 확인검사를 확대실시할 수 있도록하고 살처분보상금도 소요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고 더이상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중점 추진하겠다.

라. 방역관련 제도등 개선 방안 추진계획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시설개선을 위하여 검사장비, 기동방역차량과 소각로 설치비를 지원하고, 전문검사인력과 검사보조인을 확보하여 검진사업을 확대실시하고,

● 가축질병진단(병성감정) 기능강화 방안으로는 수의과학 연구소에 병성감정전담반을 설치 운영하고, 수의과대학과 병성감정지정기관에 장비,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 가축전염병 전파차단을 위하여 종돈장·종계장 방역위생관리 우수농장 인증제를 '96. 7. 1 시행토록 하고, 도축장·도계장에 운송차량소독시설 설치비 지원 및 닭 운송상자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 양축농가와 방역요원에 대한 방역교육 및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 가축방역담당 행정조직 일원화를 추진하고 방역업무 담당조직을 확대개편하여 가축

전염병 박멸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가축전염병을 박멸시키기 위해서는 쉬운일이 아님을 우리모두가 명심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의하면서, 더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양돈농가의 양돈업체, 방역담당 행정기관, 연구기관 및 학계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